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 시즌 2 정성일, 김원훈 저격수 등극, 조여정 리액션 폭발! 웃음+긴장감 고자극 도파민 파티 오픈!

2025. 9. 8.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연출: 김민, 강나라)' 시즌 2가 '리액션 여왕'으로 급부상한 조여정과 '나이스한 김원훈 킬러' 정성일의 쌍끌이 활약으로 숨 막히는 긴장감과 사이드 웃음을 동시에 선사하며 고자극 도파민 파티를 오픈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 시즌 2는 월급 루팡과 칼퇴를 꿈꾸는 DY기획의 찐직장인들, 스타 의뢰인과의 심리전 속에서 펼쳐지는 리얼 오피스 생존기!

5화에서는 조여정과 정성일을 의뢰인으로 맞아 프로모션을 제안하는 DY기획 직원들의 활약이 그려졌다. '아르마딜로 짤'의 주인공 조여정은 어떤 짓곳은 애드립에도 흔들림 없는 미소와 침착한 대응으로 오히려 분위기를 장악하는 '웃음 유발자'로 활약했다. '더 글로리'에서 '하도영' 역으로 주목받은 정성일은 이날 김원훈의 애드립을 단호하게 차단하는 '나이스한 김원훈 킬러'로 맹활약하며 심장 쫓깃한 긴장감을 유발했다.

정성일의 '애드립 철벽 방어'에 김원훈은 제대로 당했다. 정성일은 "밑도 끝도 없는 애드립은 별로"라며 김원훈의 개그 스타일을 정면으로 저격했고, 예상치 못한 직구에 김원훈은 한숨과 실소, 정색까지 오가는 리얼한 반응으로 폭소를 자아냈다. 계속되는 공격에 '동네북'이 된 김원훈의 수난기는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두 사람의 티키타카가 이번 회차의 핵심 웃음 포인트로 떠올랐다.

여기에 '후 부장님' 백현진의 집요한 잡도리 또한 이날 빼놓을 수 없는 웃음 포인트로 떠올랐다. DY기획 인사평가에서 김원훈을 '평균 이하'로 규정하며 자극하기 시작한 백현진의 애드립 공격에 단체로 웃참에 실패하는 등 상황극이 깨지는 광경이 연달아 펼쳐졌다. 직원들은 실제 상황인지 가상인지 경계가 모호한 장면들을 그대로 살리는 절묘한 호흡으로 순도 100% 날것의 웃음을 만들어냈다.

이날 김원훈·지예은과 함께 권고사직 위기에 몰린 현봉식의 반격이 시작됐다. 익명 게시판 험담의 범인으로 몰리자, 현봉식은 정성일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말실수 → 정색 → 미소까지 오가는 고난도 리액션으로 웃음을 유발했다. 특히 5화 엔딩에서 진짜 범인이 현봉식으로 밝혀지며, '직장인들'은 반전 드라마로 급변했다.

그런가 하면, 명확하지 않은 기준의 인사평가, 직장 생활의 불만을 용기 있게 쏟아낸 익명 게시판 등 '찐직장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소재들은 공감과 씁쓸함을 동시에 안겨줬다. 불합리한 평가에 맞선 직원들의 '후 부장님' 등급 역 매기기는 대리 만족과 통쾌함을 선사하며, '직장인들'만의 극사실 오피스 코미디 매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날이 갈수록 상황극에 최적화된 애드립 레벨 업으로 웃음 도파민을 무한 자극 중인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 시즌 2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쿠팡플레이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